

TV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추석특집 재회(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잘났어 정말>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쾌도난마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4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50 시사특급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빨간 자전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50 뉴스와이드	00 클래식 오디세이 55 바른말 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오래살고 싶은 家 장수패밀리(재)	00 2013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LA vs 샌프란시스코>	00 SBS 생활경제 10 KBC 생활뉴스
12	00 KBS 뉴스12	55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SBS 12뉴스 30 건강클리닉
1 00 명랑해결단(재)	00 KBS 걸작선 <학교 2013>(재)	45 힐링 투어 아생의 발견(재)		30 피우지 민들레(재)
2 10 탐방평평	00 KBS 뉴스 10 KBS 배수영대회	10 다큐멘터리 3일 베스트(재)	20 구암 허준(재)	00 SBS 뉴스 10 문화가중계(재)
3 20 직언직설		00 KBS 뉴스타임 1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5 후두스 미니미니(재)	00 MBC 경제 뉴스 10 헬로 키즈 클루머라 동물여행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재)
4 30 쾌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김매기 도사>	00 구름행(재) 30 TV유치원	00 꼭? 뭐? 뭐? 스크 30 안녕 토토비	00 최강 탐플레이트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키오카 30 영상앨범 산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마음의 크레파스
6 00 뉴스현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통 1~2부	20 불만제로 UP	05 전국TOP10 가요쇼(재)
7 20 헬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7 30 KBS 순천특집 다큐멘터리 <버리데기 내 필리아>	50 일일 드라마 <부비반지>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떠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웃는바 주의보>
8 30 관찰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지성이면 천천>	30 생생정보통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특별기획 <구암 허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한밤의 TV연예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컬투의 배란다쇼	
10	00 생방송 집중토론 50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00 수목드라마 <비밀>	00 수목미니시리즈 <투력스>	00 드라마스페셜 <주군의 태양>
11 00 헬컴 투 돈월드(재)	30 KBS 뉴스라인	20 바라던 바다 3부	20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20 짝
12 10 주시타파(재) ①:20 그때 그 사람(재)	00 KBS 글로벌 24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00 KBS 뉴스 10 T타임 40 알약특목	40 스타 여행에 빠지다	40 MBC 뉴스24 ①:00 스포츠 다이아리 15 지원봉사 희망 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40 나이트라인 ①:10 테마스페셜

EBS

06:10 세계의 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열려라 아바디스	18:30 생방송 보나하니
07:00 곤	(김옥린의 집밥이 진리다 -표고버섯 은행밥과 풀기 두부조림)	15:15 꼬미 기사야	19:30 두기 탐험대
07:15 마이의 모험	11:20 세계테마기행	15:30 비두와 친구들	20:00 EBS 뉴스
07:30 꼬미버스 타요	12:00 EBS 정오 뉴스	15:45 두비두비 눈보리	20:20 명의 건강비결
07:45 로보카 폴리	12:10 EBS 초대석	16:00 덩동명 유치원(재)	<한국인을 위협하는 5대만-대장암>
08:00 덩동명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20 아기 고릴라 동동	20:30 세계테마기행 (타쿠)
08:20 풍선 꼬끼리 발루보	13:10 출거운 수학 EBSMATH	16:30 코코몽2	21:30 한국기행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20 레이의 우주 대모험	16:45 모이모이재	<담양 - 선비의 풍류가 흐르는 곳>
08:50 모야모야	13:30 두기 탐험대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1:50 EBS 디류 프라임
09:05 코코몽2	13:45 꼬미 탐험대	17:15 꼬미버스 타요	<빛의 물리학>
09:20 부모	13:50 꼬미 철학자 후고	17:30 풍선 꼬끼리 발루보	22:45 극화집업 <수직 발파 1부>
<민스 신동 전예진>	14:00 짝난 제리우스 박사님	17:45 로보카 폴리	23:15 세계의 눈
10:00 한국기행	14:15 장난감 나라의 노디	18:00 마이의 모험	24:05 지식채널e(재)
10:20 명의의 건강비결	14:30 척척폭죽 처갓된	18:15 곤	24:10 한국 영화 특선 <1번기의 기적>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한국사> 11:40	<화학II>
00:50 내신 6강	<수학II> 12:30	박복의 이수리 만나는 경제
01:40 포스	<문학I> 13:00	탐스런 <생명과학II>
02:30	<문학II> 14:00	<지구과학II>
03:20	<적분과 통계> 15:00	인터넛 수능 <문학A>
04:10	<기하와 벡터> 16:00	EBS N제 <생활과 윤리>
05:00	<수학II> 17:00	인터넛 수능 <듣기B>
05:50 탐스런	<물리I> 18:00	708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A형>	<국어A형>
	<영어B형>	<영어B형>
07:30	<화학I> 20:00	<수학I>
08:20 탐스런	<화학II> 21:00	<수학II>
09:10	<생명과학I> 22:00	<동아시아>
10:00	<지구과학I> 23:00	<생활과 윤리>
10:50	<물리II> 23:50	지식채널e

EBS플러스2

07:00 공인 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40	<사회 4-2>
07:3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6:10	<사회 5-2>
08:00 인-적성 시험 대비 강좌	16:40	<사회 6-2>
08:30 장수의 비밀	17:10	통통가족
09:10 중학 1학년	<국어I> ①②	17:20 중학개념 풀장내기 <수학>
09:50	<수학II>	18:00 성공! 인생 후반전
10:30	<수학I>	18:30 한 그릇 속담
11:10	<도덕>	18:40 원더풀 싸이언스(5/6)
11:50 중학 2학년	<수학>	20:20 EBS 문화사 시리즈
12:30	<역사I>	<제1편 명동백자>
13:10 중학 3학년	<과학>	21:20 등업산공
13:50 중학 개념 풀장내기	<세계사>	22:00 중3 퍼펙트 체크업 <역사해-2>
14:30	<한문>	22:40 중학 3학년 <수학3-2>
15:10 초등 중강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특강	23:20	<역사해>
	<사회 3-2>	24:00 예술의 광장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5일 (음 8월 21일 甲午)

子	36년생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48년생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60년생 풍성한 결실이 보인다. 72년생 목재에 부합하지 않는다. 84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6, 53
丑	37년생 서두르면 무리가 따를 것이다. 49년생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겠다. 61년생 하찮게 여겼던 것 속에서 행운의 열쇠가 있을 수다. 73년생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나다. 85년생 지출보다 수입이 더 크다. 행운의 숫자 : 40, 28
寅	38년생 마음껏 기량을 발휘해도 좋을 때가 되었다. 50년생 다각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62년생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자제하는 것이 백 번 낫다. 74년생 형식적인 절차는 사족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8, 04
卯	39년생 열린 마음이 있어야 새로운 기회를 잡는다. 51년생 상생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년생 준비하는 정도에 따라 성취도가 다르다. 75년생 지나치게 살피다보면 실기할 수밖에 없으니라. 행운의 숫자 : 07, 45
辰	40년생 애매하다면 실행할 필요 없다. 52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이루어지니라. 64년생 순차적인 계획의 실현이 대어를 낚게 해줄 것이다. 76년생 잡다한 것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핵심 사항에 매진하자. 행운의 숫자 : 13, 39
巳	41년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3년생 지속적이야만 실효성을 띠게 된다. 65년생 시일을 끌어 왔던 바가 완성 단계에 와 있으니라. 77년생 반복적인 확인만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한다. 행운의 숫자 : 77, 88

午	42년생 지난날에 쌓았던 공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리라. 54년생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뜻밖이다. 66년생 과안대소하게 될 일이 있겠다. 78년생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38, 14
未	43년생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신감을 갖자. 55년생 속도를 조금만 조절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67년생 근본적인 것을 살펴본다면 해결책은 쉽게 나온다. 79년생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6, 08
申	44년생 괜히 굶어서 부스럼 낼 필요는 없으니라. 56년생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생길 것이다. 68년생 생방송이 상호적이야만 오래 지속될 것이다. 80년생 자신의 입지가 상생세를 타면서 굳혀지는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52, 76
酉	45년생 상대의 조건을 가볍게 여긴다면 낭감해질 것이다. 57년생 완벽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과욕일 뿐이다. 69년생 재물이 생기는 기쁨이 있다. 81년생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21, 61
戌	46년생 내부에서 찾는 것이 옳다. 58년생 일고릴일이 교호 순환 구조를 띠게 될 것이다. 70년생 준비해 왔던 바대로라면 확실한 성과를 거두리라. 82년생 귀인의 방문이 있을 것이니 맞이할 준비를 하자. 행운의 숫자 : 82, 22
亥	47년생 굳이 내색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59년생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 열려지지 않아도 되니라. 71년생 즉시 특단의 조치를 있어야겠다. 83년생 한 곳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86, 6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배우의 변신은 무제한 ... 아직도 목 마르다”

김해숙, 영화 '강철이'에서 드라마 '왕가네...' 까지 증횡무진

국내 여배우 중에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가 또 있을까. 중년 들어 더 왕성하게 연기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배우 김해숙(58) 얘기다. 말 그대로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증횡무진'하며 또래 여배우들은 물론, 더 어린 배우들까지 압도하며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

지난 23일 영화 '소원' 언론·배급 시사회 뒤에는 기자들과 영화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연으로 출연한 김해숙이 주요 화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주연이 아니어서 그의 출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영화에서 그는 꽤 중요한 비중의 역할로 다시 한 번 존재감을 드러냈다.

극중 아동성폭행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뒤 피해자인 주인공 아이 '소원'이를 비롯해 엄마, 아빠를 상담하고 치료해주는 소아정신과 의사 역할로 분했다. 그는 늘 그랬듯 큰 표정 변화나 과장된 표현 없이도 카리스마를 뽐내며 배역을 묵직하게 소화해 드라마의 흐름을 살렸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는 10월 2일 개봉하는 이 영화 '소원'과 같은 날 그의 주연작인 '강철이'가 동시에 개봉한다는 것이다. 스크린에서 그가 비중 있게 출연한 두 작품이 정면으로 맞붙게 됐다. '강철이'에서 그는 유아인이 연기하는 주인공 '강철'의 엄마 '순이' 역을 맡았다. 그동안 많이 연기해온 전통적인 어머니 상이 아니라, 다소 철부지 같고 동네배네 사고만 치고 다니지만 아들에게 친구 같은 다정한 엄마를 연기했다. 그동안 주로 보여준 강인하고 단단한 모습에서 조금 벗어나 '귀여운' 매력을 한껏 발산했다. 이 작품은 통상 배역의 비중으로 이름을 올리는 배우 이름 순서에서 오랜만에 그가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린 작품이다.

본인이 결코 원치는 않았겠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촬영한 '강철이'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촬영한 '소원'이

각각 다른 투자배급사의 개봉 전략에 따라 오는 10월 2일 나란히 개봉하게 됐다. 게다가 두 영화가 국내 투자배급사 규모로 1-2위인 CJ엔터테인먼트와 롯데엔터테인먼트의 울가를 대표적으로 맞붙는다.

이런 상황은 다작을 하는 배우들에게 종종 있는 일이지만, 김해숙이 더욱 돋보이는 건 그의 활약이 스크린뿐 아니라 안방극장까지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달 초 방영되기 시작한 KBS 주말드라마 '왕가네 식구들'에 이어 SBS 월화드라마 '수상한 가정부'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왕가네 식구들'에서 그는 대가족의 엄마로 핵심 역할을 맡았는데,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가 화제를 몰고 있다. 자신의 속물적인 욕망을 드러내며 돈을 많이 주는 자식과 적게 주는 자식을 심하게 차별 대우하는 엄마를 연기하고 있다.

23일 첫 선을 보인 '수상한 가정부'에서도 그는 미스터리한 인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가 이렇게 방송계와 영화계를 가릴 것 없이 여러 작품에 출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영화·드라마 제작자, 감독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 연기력에 관해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한 장면에 등장해도 강한 인상을 남게 하는 강인감을 살리는 배우라고 전문가들은 평한다.

그는 지난해 영화 '도둑들'에서도 1300만 흥행에 일조했다. 지난 7월엔 안방극장에서 열풍을 일으킨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도 특별출연해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지난 7월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배우의 변신은 무제한이라는 데 아직도 늘 목이 마르다. 영화 '무방비도시'의 소매치기도 할 수 있고 드라마 '하얀거탑'의 악역도 할 수 있을 마음껏 변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며 끊임 없는 연기 욕망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김해숙>

광주영어방송, 10월 1일부터 중국어 방송 실시

지역민 요구 적극 반영 ... 제작시간 2시간 연장

광주영어방송(FM 광주 98.7, 여수 93.7)이 10월 1일부터 중국어 방송을 한다. 광주영어방송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베이징 표준어로 시정소식과 생활정보, 행사, 문화뉴스 등을 방송한다. 이에 따라 광주영어방송 자체제작시간은 8시간 30분에서 10시간 30분으로 늘어난다. 지난 2009년 4월 1일 개국한 광주영어방송은 그동안 영어로만 방송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이 35%(1만3000여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중국어 교육에 대한 지역민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 중국어 방송을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영어방송 한 관계자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다국어 방송 허가에 따라 중국어 방송이 된다"며 "중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1일은 중국(중화인민공화국) 건국 기념일이다. 1949년 이날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공식 선언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TV 하이라이트

소쇄원, 선비의 풍류를 따라서



한국기행-담양(EBS·밤 9시30분) = '3부, 선비의 풍류가 흐르는 곳', 바랍소리, 새소리, 낙엽소리 등 어느 하나 허투루 지나칠 수 없는 소쇄원은 시인 묵객들이 떠나며 지니고 있는 정원이자. 5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소쇄원은 여전히 찾는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한다. 소쇄원에서 30분 정도 차로 가면 행복마을로 선정된 무림마을이 나온다. 귀농한 지 17년째인 김승일씨 부부는 옛 선비들이 즐겨 마셨던 죽모차를 만들기 위해 집 뒤에 있는 대나무 밭에서 손수 찾은 차를 따낸다. 죽모차를 들고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서판손 할머니네를 찾는 부부. 따뜻한 차 향을 타고 무림마을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핀다.

모란시장의 고소한 맛 구경



관찰카메라 24시간(채널A·오후 8시30분) = '이 맛에 산다! 모란시장 기름골목'편. 수도권 최대 규모의 오일장, 성남 모란시장. 그 중에서도 유난히 고소한 냄새 솔솔 풍겨오는 골목이 있다. 참기름부터 들기름, 고추기름까지 기름이라는 기름은 다 모아놓은 기름골목이 바로 그곳. 40여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유독 이곳 모란시장에서 수많은 기름집들이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을 무엇일까? 365일 고소한 기름내 진동하는 기름골목. 장남이 되면 기름집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환상의 짝꿍들이 출몰한다. 42곳의 기름집에 하루 2만 병의 기름병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상인부터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용으로 하루 3000개씩 소모된다는 요구르트 배달 아주머니까지.

최필립, 해양 경찰 도전기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KBS1·밤 10시50분) = '최필립의 해양경찰특공대 2부'. 지난 60년간 국내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사건을 훈련 시나리오로 삼아 진행되는 해양경찰 활동상 탐레이 훈련에 나선 최필립.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1993년 292명이 사망하는 '서해 헬리콥터 침몰사건'처럼 대형 여객선 침몰 상황을 가정해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망망대해에 빠진 채 1시간이 넘게 구조를 기다리는 역할, 헬기와 단정도로 출동해 구조를 하는 구조대 역할을 맡은 해양경찰 특공대원들. 그들을 구하기 위해 구조헬기와 고속 단정 3대, 해군 전함까지 함께 합동 작전을 펼친다. 가장 먼저 구조된 최필립의 사수 임옥재 순경은 한숨을 돌리지만, 아직 구조되지 않은 특공대원들의 구조요청 신호는 계속되는 데...